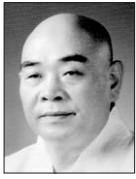


일주문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은 1월 19-20일 양양 낙산사에서 산하 단체들의 포교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를 개최한다.(02)2011-1894



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 공식식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은 1월 25일 오전 11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서 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산기공식을 봉행한다.



불교TV 초청 법회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1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무상사 대법당에서 열리는 불교TV 초청 법회에 법문한다.(02)3270-3492



북한연구소 이사장에 선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병천 고문(前 동국대 총장)이 1월 9일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제1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민 이사장은 1970년 대부터 북한연구소 이사를 맡아왔다.



간화선 입문 수강생 모집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은 1월 24일 개강하는 '간화선 입문 7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40명 모집.(02)735-2428



남대문세무서장 부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남대문은남 한영호 이사는 1월 2일 국제청인사를 통해 동작세무서장에서 남대문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사)남북누리나눔 창립

(사)남북누리나눔 창립대회가 1월 8일 청주 매직플라자 화이트홀에서 열렸다. (사)남북누리나눔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족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지역민의 대북 지원협력사업 참여가 남북 평화를 위한 나눔 사업이며 민족번영과 통일을 위한 초석 놓기"라는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관안 심의 의결 ▲임원 구성안 심의 의결 및 선임 임원인사 ▲사업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진행했다.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이 평화 번영시대와 남북교류 협력이 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했다. 국회의원 홍제형, 오제세, 노영민, 청주시장 남상우, 오재현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청주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노영우 민주평통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총창지서장



창립대회는 1월 8일 청주 매직플라자 화이트홀에서 열렸다. (사)남북누리나눔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족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지역민의 대북 지원협력사업 참여가 남북 평화를 위한 나눔 사업이며 민족번영과 통일을 위한 초석 놓기"라는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관안 심의 의결 ▲임원 구성안 심의 의결 및 선임 임원인사 ▲사업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진행했다.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이 평화 번영시대와 남북교류 협력이 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했다. 국회의원 홍제형, 오제세, 노영민, 청주시장 남상우, 오재현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청주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노영우 민주평통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총창지서장

인사
불교TV ▲총무국 부국장 노원래 ▲사업국 부국장 성윤숙 ▲제작2부 부장 강영호 ▲광고사업부 부장대우 심재현 ▲제작3부 부장대우 류건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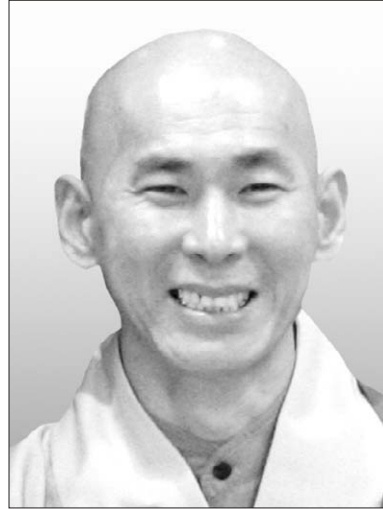
“어린이법회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대불어 부산지구 신임 회장 효선 스님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교사를 격려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불어 부산지구(이하 대불어 부산지구) 회장으로서 취임한 효선 스님(공덕원 주지·사진)의 야심찬 다짐이다.

1982년 창립된 대불어 부산지구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 80년대 어린이 법회를 봉행한 사람은 60~70 곳으로, 한 사람 당 평균 150여명의 어린이가 법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어린이 법회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못한 채 어린이 불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명맥을 이어가며 열심히 활동한 대불어 부산지구는 사단법인 동맹에 통합 운영되고 있었다. 효선 스님은 그동안 대불어 부산지구의 재건을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불교 교육과 포교의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 시켜오면서 부산지구의 독립을 준비해 온 것이다. “현재 대불어 교사대학에 신청한 선생님



들의 수만 해도 정원 8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현재 어디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교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교사들은 마땅히 봉사 할 곳을 못 찾아 고심 중입니다. 앞으로 대불어 부산지구가 구심점이 되어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

입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의미로 들린다. 침체됐던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쏟아 붓든 인재를 동원하여 부처님의 어린이들을 일깨워겠다는 힘찬 발걸음이다.

“부산지구 인적 인프라 조직도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구 사무직 간사와 사무국장님,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사무원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활발했던 부산지구의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포교에 관련된 주요 행사에서 몸으로 함께 뛰는 인적 자원들을 통해 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효선 스님은 직접 사찰을 방문하여 듣는 ‘찾아가는 법당’ 봉사팀 및 교사, 그리고 임원단들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인재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효선 스님. 젊은 패기만큼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중요성을 익히겠다는 의지를 스님은 재차 강조했다. 대불어 부산지구 사무실은 부산불교회관 5층에 준비 중이며 1월 말에는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임명

정석원 변호사

“불교와 조계종단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3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법률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정석원(36, 법명 수월·사진) 변호사가 9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정 변호사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오래전 미래>와 <불사 등을 읽으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서울 신림동 연화정사 법회에 참석하며 불심을 키워왔다. 또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르마법우회 예불종무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여러 철학서적을 읽으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이러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정 변호사는 “막상 와서 보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막막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마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여수영 기자

맹란자씨 남촌문학상 수상자에 선정

불자 수필가 맹란자씨(사진)가 <계간문예>에서 주관하는 제3회 남촌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맹씨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은 수필집 <라데팡스의 불빛>이며 상금은 500만원이다. 시상식은 1월 24일 오후 5시 서울 연건동 합춘회관에서 열렸다.

맹씨는 1996년 수필전문지 <에세이문학>으로 등단, 제19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삶을 원하거든 죽



음을 기억하라> <남산이 복신을 보며 웃네> <사유의 물>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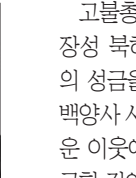
한편 남촌문학상은 前 GS건설 회장 남촌 허준구씨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소설과 수필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중신회 발전금 1억 쾌척”

백창기 명예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사진)이 1월 3일 신도회 발전금으로 1억을 쾌척했다. 백 명예회장은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에게 발전금을 전달하며 “신도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기쁜 마음이다”면서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해서 언제라도 마음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명예회장이 전달한 발전금은 서울 수송동에 건립하고 있는 전법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법회관은 현재 기초 공사를 끝낸 상태로 올 6월말 경 완공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백양사 자비의 성금 전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성우가 1월 7일 장성 북면사무소(면장 이용원)에 자비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백양사 사부대중이 농촌의 고령화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법회를 통해 모금한 것이다. 성우 스님은 “백양사는 장성 지역민과 함께 공존하므로, 백양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백양사는 향후 별도의 자원봉사모임을 결성, 반찬나누기, 자비의 도시락 나누기 등 지역 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서장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96주년 법요식 성료



천태종은 1월 6일 흥보산 구인사 설법보전 4층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96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도용 중경 스님을 비롯해 운덕 대종사,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대조사님의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7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신년하례를 비롯한 스님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덕우 스님은 “올 한해 종단의 숙원인 원사 건립의 대작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중도스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봉선교종 신년하례 및 시무식



(제)대한불교일봉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은 1월 10일 인천 호불사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중정 봉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공 스님, 종회회장 화엄 스님 등 중단 임원 및 중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봉해 스님은 신년교시를 통해 “종단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확고한 중도교육을 통해 수행자의 건전한 자제를 견지하라”고 당부했다.

효표부대 효표사 새해 첫 법회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월 6일 13공수여단 효표부대(여단장 준장 이정하) 효표사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불자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했다. 대성사 신도회는 장병들에게 피자를 보시고 위문했다. 효표사는 매주 법회를 봉행하고 성목 스님과 문영기 참모장, 김남학 신도회장 등이 장병들의 점심을 손수 준비하여 제공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2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빙의치유법: 빙의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근접쟁제요....
최면학: 최신회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성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정문빌딩 2층)
전화: (042)255-0734-5